

경기도는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2020년 9월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DMZ Forum 2020'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특별세션, 6개 테마의 기획세션, 6개 테마의 평화운동 협력세션과 초청세션이 있었다. 이 중 평화운동 협력세션 2-1 미군기지과 주민의 삶 -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두레방과 기지촌여성의 인권과 삶-

김은진 원장(두레방)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두레방을 창시하고 젊음을 두레방에 바쳤던 문혜림 선생의 삶이 딸 문영미 씨를 통해 자전적 이야기로 나온 책의 제목이다. 미군들과 결혼했거나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버려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살아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아온 여성, 돈을 벌어 오빠·동생들 학비는 보태주었으나 집안의 수치였던 여성, 달리는 벌어들여 나라를 살렸으나 부끄러운 여성이 된 기지촌여성 삶의 현실적 표현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기지촌의 다른 이름 ‘빼벌’

20세기 한반도에서의 성매매 역사는, 군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의 주둔 장소가 고정되자 그에 대응하여 성매매 등 미군병사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형성되었고, 그곳이 나중에 기지촌으로 불리게 된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의해 기지촌이 정화·정비되게 된다. 한국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외화벌이의 도구로 여성을 이용하였다. 한때 기지촌에서 여성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 이상을 부양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였다.¹⁾

두레방이 속한 ‘빼벌’마을은 6.25 한국전쟁 이후 미2사단 포병여단 본부 캠프스탠리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기지촌으로 발전하게 된다. 1960년대 이곳에는 400명이 넘는 기지촌여성들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강아지도 달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넘쳐났다고 한다. 이곳은 미군들을 위한 클럽, 음식점과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미용실, 약국, 옷가게, 신발가게, 목욕탕 등 성황을 누렸다.

그러나 미군이 2013년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빼벌마을은 활기를 잃었고 돈을

1) 캐서린 H.S.문, ‘동맹속의 섹스’ 삼인, p56~76

별기 위해 온 사람들 대부분은 마을을 떠난 상태이다. 나이 들고 병든 기지촌여성들은 이곳 낙후된 빼벌에서 지난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 기지촌여성의 삶

두레방의 모든 활동가들은 매일 기지촌여성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기 한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자

박** 씨는 15세였던 1971년부터 1995년까지 24년 동안 동두천·의정부에서 미군위안부로 생활했다. 박 씨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구하려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는데 사장은 박 씨를 경기도 연천군 소재 한 다방에 소개비 15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박 씨는 탈출하려고 손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다방 주인이 그것을 알고 박 씨를 동두천 미군기지촌으로 되팔았다. 그리고 다시 의정부 빼벌로 넘겨졌다. 세 번의 소개비로 그녀에게 물린 빚은 눈덩이같이 불어났다. 24년간 매일 미군을 5명 이상 상대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박 씨는 성병검진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받았다. 검진을 통과해 검진증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했다. 미군과 의정부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토벌(단속)’을 수시로 나왔다. 클럽에 와서 검진증을 확인해 도장이 없으면 버스에 태워 낙검자수용소에 가뒀다.

낙검자수용소(일명 몽키하우스)는 “낙검되거나 컨택(contact)되면 가두는 곳”이다. ‘낙검’이란 성병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컨택’은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긴 위안부를 지목하는 행위다. 컨택은 형식이나 절차 없이 수시로 진행됐고, 심지어 미군이 자신의 성병과 관련이 없는데도 싫어하는 여성을 지목하기도 했다.

낙검자수용소에 끌려가면 무조건 페니실린 주사부터 놓고 감금했다. 페니실린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다른 치료나 처치는 없었다. 교육을 자주 받았는데 교육 중에 애국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위안부들이 가입한 자매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회장은 포주들과 보건소의 편이라고 했다.²⁾

기지촌여성들은 그들과 관계 맺은 모든 집단들로부터 착취와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다. 클럽 내에서의 임금착취와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성매매강요가 있다. 그리고 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혼인빙자동거 및 동거혼, 성폭력, 신체폭력, 성매매 과정 중의 폭력 등 비인권적 행위를 당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 의한 무참한 성병진료, 감독할 경찰들과 담당 공무원, 보건소 직원들에게 당하는 차별, 낙인 등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부모형제 등 친족에 의한 착취와 낙인이 있다. 정부에 의해 가뒀진 여성들은 긴긴 세월 동안 험난한 기지촌 성매매를 겪으며 살아왔고 다른 곳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었다.

3. 기지촌여성 인권의 현주소

2)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증인 박**의 삶

두레방은 1986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지촌여성들이 함께 모여 자존감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30여 년 동안 두레방은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문제, 군사주의로 인한 피해,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되었던 고령의 기지촌여성들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들을 위한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치유 프로그램, 자활사업, 출판·영상자료 제작 등을 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힘써왔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의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민관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손잡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1) 122명의 피해 여성들이(현재 9명 사망, 113명)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1심(2014 가합 544994)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인정받았다. 2018년 2월 8일, 2심(2017나 201770)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가는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³⁾ 1심, 2심 승소하였으나 이 소송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2012년도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7. 7.14.)을 발의하였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이 수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위의 부적절성이나 배상비용 추계의 문제, 한미동맹의 민감성, 사법부의 판단 부재 등을 이유로 들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다.

3) 2020년 4월 29일은 기지촌여성운동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날이었다.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가 제안 7년 만에 통과 되었다.

현재 기지촌여성들은 70~80대의 고령으로 주택난과 의료난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해서 ‘애국자’로 명명되었던 그녀들은 기지촌 쪽방에서 독거노인으로 외로움을 안고, 만성질환 및 빈곤과 싸우며 고단한 삶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있는 기지촌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 안에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혜택과 함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지원이 가능해 진다.

4. 기지촌여성의 인권을 위한 제언

3) 하주희 2018, ‘기지촌 미군위안부: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서 발췌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심포지엄

앞으로의 과제는 많다. 경기도 조례를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 기지촌여성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위한 조례의 실천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담보해 줄 것을 제언한다.

- 1) 대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기지촌여성들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며, 이 지난한 소송에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란다.
- 2) 국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여성 문제에 대한 역사적·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 3)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보상금 지급’을 2021년 예산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사항이다.

- 4) 기지촌여성에 관한 진상규명 및 실태조사, 인권보장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5) 기지촌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가 연구되어야 한다.
- 6) 기지촌 기록관 등 교육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7) 기지촌여성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 8) 기지촌여성들의 자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
- 9) 각 시 별로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 10)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 및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11) 보건소(검진소)로 쓰인 현 두레방 건물을 포함하여 기지촌 관련 역사적인 건물이나 장소를 발굴하고, 보존해야 한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 관련 또 다른 커다란 과제를 안고 힘쓰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듯이, 1994년부터 오늘까지 기지촌과 한국성매매사업장에는 필리핀 및 동아시아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정부가 발급해 주는 E-6비자(예술흥행사증)로 해마다 많은 수가 입국하고 있다. 그들 역시 한국의 기지촌에서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서 살아가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군인 남자친구, 업주와 프로모터, 또는 손님으로부터 임금착취나 체불,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이용당하고, 버려진다.

두레방은 70년대 전후 한국 기지촌의 전형이 이주여성에게로 똑같이 복제되는 현실을 현장에서 매일 접하고 있다. 아울러 두레방은 2009년 성착취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설립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 12) 이에 정부와 경기도는 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기지촌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인신매매방지 특별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5.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껏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 우리의 귀를 포함하여 가슴을 활짝 열어 그녀들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인가? 군대의 주둔으로 숨죽여 평화를 이루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평화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국가에게 필요한 것이 국방의 안전, 경제적인 안전과 함께 일순위로 자국민 보호의 의무,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것일진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은폐된 성매매공간인 기지촌에서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기지촌여성들은 이용당했고, 버려졌으며, 고쳐지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슴 깊이 안고 지금껏 살아왔다.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를 확실히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